5주차: 함수와 재귀함수

강사: 김현수

0. 목차

0. 목차

- 1. 함수란?
- 2. 지역변수와 전역변수
- 3. 함수의 선언
- 4. 재귀함수란?
- 5. 문제 풀이
- 6. 부록

소입설에서 파이썬으로 함수를 다들 만들어 보았을거에요! (배웠겠죠..?) Q. 그럼 다음 두 함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
def printSum(a, b):
    print(a + b)

x = 1
y = 2

printSum(x, y)
```

```
def returnSum(a, b):
    return a + b

x = 1
y = 2

print(returnSum(x, y))
```

A. 바로 return 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파이썬에서는 내마음대로 return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랬지만 깐깐한 C언어는 처음부터 return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딱 명시해주어야 해요.

파이썬 함수와 C로 만든 함수 비교해보기 각각의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함수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리턴타입 함수이름(매개변수) { 함수 정의 }

함수 선언의 첫째 줄 "리턴타입 함수이름(매개변수)" 이 부분을 함수 원형 (function prototype)이라고 부릅니다.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있어요.

어떤 정보들을 담고있는지는 다음장에서 비교해볼거에요!

Function prototype이 가지고있는 정보

1. 매개변수(parameter)

Python : 변수 이름만 쓰면 됨.

C-style : 변수 자료형까지 써줘야 됨.

2. 리턴타입

Python : 정해두지 않아도 됨.

C-style :

리턴 값이 int라면 int, 없다면 void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 주어야 함. void의 경우 return;을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됨.

흔히 보던 main함수의
return 타입은 ? int
parameter은 ? void (매개변수 없다는 뜻. 아예 void도 안 적어도 됨.)
return 문장은 ? return 0;
(근데 유일하게 main함수 한정으로 return타입이 int인데도 불구하고

return 0;를 생략 해도 된다!)

Q. 다음 코드가 틀린 이유는?

A. int x, int y는 main 안에서 선언된 지역변수이기 때문!

1. 함수 안에서 선언하기(지역변수) => 함수 밖에서는 사라진다

```
#include <stdio.h>

printf("%d\n", x + y);

printf("%d\n", x + y);

int x = 1;

int y = 2;

printSum();

printSum();

}
```

단점: main 함수 안에서 선언한 x, y는

다른 함수인 printSum에서는 접근 불가 (빨간줄 보이나요)

2. 함수 밖에서 선언하기(전역변수) =>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

```
#include <stdio.h>

int x = 1;

int y = 2;

proid printSum() {

printf("%d\n", x + y);

mint main(void) {

printSum();

printSum();
```

장점: 아예 함수 밖에서 선언한 x, y는 아무데서나 접근 가능

- => 일일이 함수의 파라메터로 넘기기 귀찮으니까 웬만한 변수는 전역변수로 선언하자!
- + 전역 변수는 초기화하지 않아도 디폴트값(0, \0, false 등)으로 초기화 됨.
- + 크기가 큰 배열의 경우는 전역변수로만 선언가능하기도 하다.
- -> 뭐다? 전역 변수가 짱이다ㅇㅇ

1. 함수 안에서 선언하기(지역변수) => 함수 밖에서는 사라진다

```
#include <stdio.h>

pvoid printSum() {
    printf("%d\n", x + y);
    }

mint main(void) {
    int x = 1;
    int y = 2;
    printSum();
}
```

장점 : 소입설 과제 등 실제 개발을 할 때는 지역변수로 선언해야 정보가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

2. 함수 밖에서 선언하기(전역변수) => 아무데서나 쓸 수 있다

```
#include <stdio.h>

int x = 1;

int y = 2;

proid printSum() {
    printf("%d\n", x + y);

}

mint main(void) {
    printSum();
}
```

단점 : 실제 개발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 전역변수로 선언한다면 의도치 않게 변수가 잘못 쓰일 수도 있다.

PS할 때만 적극 지향하자!

Q. 다음 코드가 틀린 이유는?

```
#include <stdio.h>
int x = 1;
int y = 2;

int main(void) {
  printSum();
}

Evoid printSum() {
  printf("%d\n", x + y);
}

Int main(void) {
  printf("%d\n", x + y);
}

Int main(void) {
  printf("%d\n", x + y);
}
```

A. printSum이 선언(10번줄)되기도 전에 main에서 호출(7번줄)했기 때문!

방법 1. main함수 위에다가 선언한다

```
#include <stdio.h>

int x = 1;

int y = 2;

proid printSum() {
    printf("%d\n", x + y);

}

mint main(void) {
    printSum();
}
```

장점: 간단하다. PS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한다.

방법 2. main함수 밑에다가 정의하되, main위에 프로토타입을 적어준다 (3번줄)

```
#include <stdio.h>

void printSum(int x, int y);

int main(void) {
    printSum(1, 2);
    }

pvoid printSum(int x, int y) {
    printf("%d\n", x + y);
}

printf("%d\n", x + y);
}
```

장점 : 소입설과 창소프에서 주로 이렇게 하게 된다.

함수가 많~아질 경우 main이 너무 밀려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include <stdio.h>
         ⊟void printSum(int x, int y) {
              if(is_natural(x))
                  printf("%d\n", x + y);
          ⊟bool is_natural(int a) {
               if (a > 0) return true;
              return false;
         int main(void) {
              printSum(1, 2);
98 %
오류 목록
                   🔻 区 1 오류 🛕 0 경고 🧃
 전체 솔루션
     찍코드
              설명 스
    💢 C3861 'is_natural': 식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

방법 1. main함수 위에다가 선언한다

단점 : 함수가 여러 개 일 경우 먼저 쓰는 함수를 먼저 정의해야 한다.

특징 : 근데 당연한 이야기다. 눈 크게 뜨고 잘 보면 된다. 이 방법을 지향하자.

```
#include <stdio.h>

void printSum(int, int b);

printSum(1, 2);

printSum(1, 2);

printSum(int x, int y) {
 printf("%d\n", x + y);
}
```

방법 2. main함수 밑에다가 정의하되, main위에 프로토타입을 적어준다

특징 : 선언할 때는 변수 이름 안 써줘도 되고 정의할 때와는 다른 걸 써줘도 됨

단점: 귀찮다. 귀찮은 건 속도가 생명인 PS에서는 지양해야 한다.

소입설 과제할 때만 쓰자.

여기서 잠깐! 여기 왜 return이 2번이나 쓰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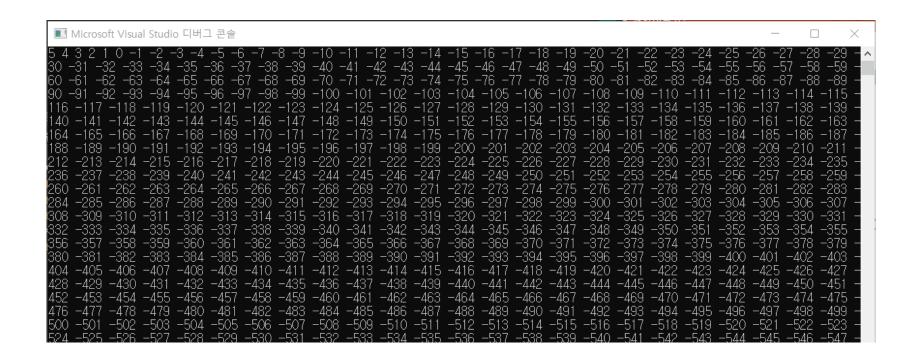
```
7
8
9
10
bool is_natural(int a) {
    if (a > 0) return true;
    return false;
}
```

return은 결과값을 호출한 곳으로 반환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함수를 끝내는 역할도 있다! while문의 break랑 비슷한 느낌이다. 특정 조건에서 함수를 끝내고 싶다면 return 해주면 된다. 반환형이 void인 함수도 return;이 있는 이유인 것 같다.(강사 뇌피셜) (근데 객지를 듣다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여튼 이런 쓰임새가 있다ㅎ)

(왠지 어느 순간부터 반말로 바뀐 기분이다)

재귀 함수(recursion)란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recursion 함수 안에서 recursion이 호출된 것이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 코드의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5부터 시작해서 -1 된 결과가 끝도 없이 출력되다가 오류를 뱉어내고 종료됩니다... 만약 내가 출력하고 싶은 것이 5 4 3 2 1 까지라면 어떤 코드를 추가하면 좋을까요~?

```
1 #include <stdio.h>
2
3 Proid recursion(int i) {
4 if (i <= 0) return; //기저 조건
5 printf("%d ", i); //i를 출력하고
7
8 recursion(i - 1); //재귀 호출
9 ]
10 Eint main() {
11 recursion(5);
12
```

i가 0이하일 때부터는 더 이상 i를 출력하지도 말고 recursion(i-1)을 호출하지도 말고 그냥 함수를 끝내자! -> 4번 줄에 if (i <= 0) return;을 추가해준다.

출력 결과 : 5 4 3 2 1

이렇게 재귀 함수가 필요한 만큼만 돌고 멈출 수 있도록 컷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코드를 "기저 조건(basis)"이라고 합니다!

기저 조건은 함수의 제일 위쪽에 적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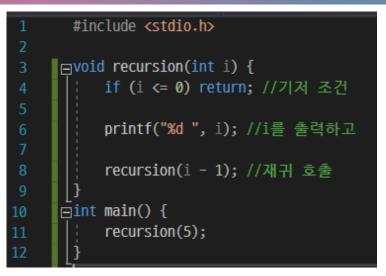
아까와는 조금 달라진 예시이다.

출력 결과 :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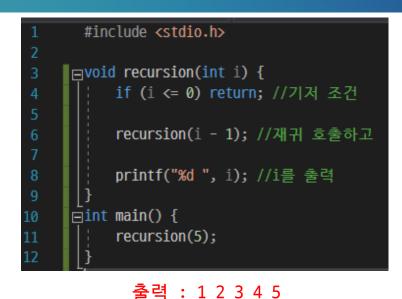
- 아까 -

출력 결과 : 5 4 3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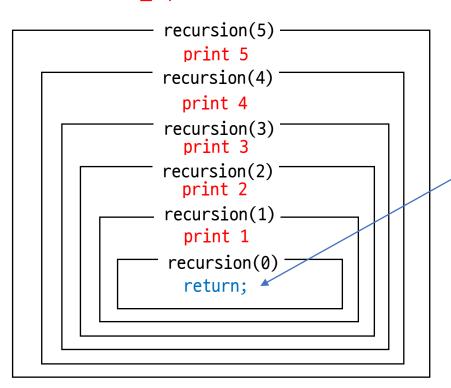
왜 둘이 다른 결과가 출력되는지 알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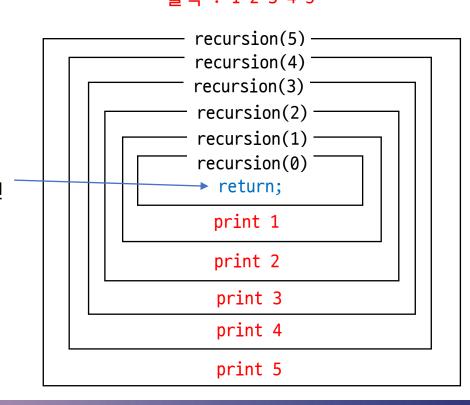
두 예제가 돌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냄



출력:54321



함수 제일 안쪽에서 return;되는 부분이 바로 4번줄 기저 조건 에 걸린 순간이다.



재귀함수를 이용하는 다른 예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왜냐하면 피피티랑 안 친한 강사가 도형 그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ㅎ

지난 시간에 배운 피보나치 수열을 배열이 아닌 재귀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 배열 version -

- 재귀 함수 versi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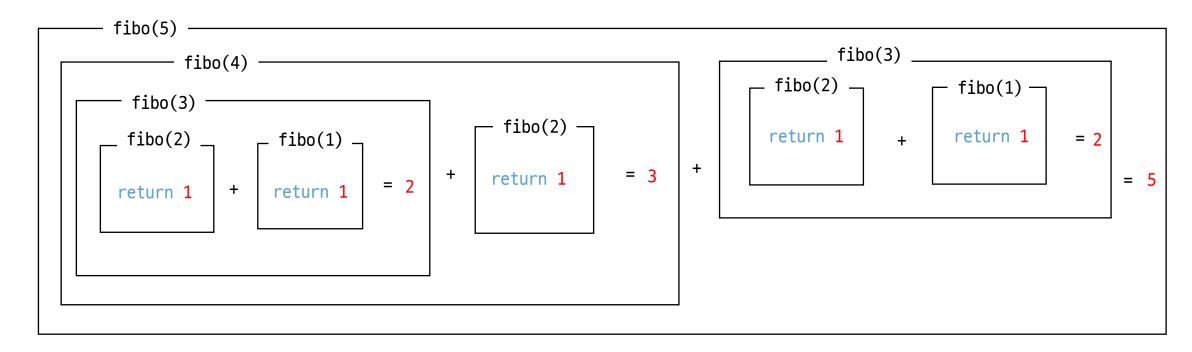
출력 결과 : 5

1 1 2 3 5.. 이렇게 가는 피보나치 수열의 n번째 수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
1 #include <stdio.h>
2
3 □int fibo(int i) {
4 □ if (i == 1 || i == 2) return 1; //기저 조건
5 □ int main() {
9 □ □int main() {
9 □ □int main() {
9 □ □int main() {
10 □ □int main() {
11 □ □int main() {
12 □ □int main() {
13 □ □int main() {
14 □ □int main() {
15 □ □int main() {
16 □ □int main() {
17 □ □int main() {
18 □ □int main() {
19 □ □int main() {
10 □ □int main() {
10 □ □int main() {
10 □ □int main() {
11 □ □int main() {
12 □ □int main() {
13 □ □int main() {
14 □ □int main() {
15 □ □int main() {
16 □ □int main() {
17 □ □int main() {
18 □ □int main() {
18 □ □int main() {
19 □ □int main() {
10 □
```

출력 결과 : 5

점화식이 메인같지만 결국 리턴이 되는 근본적인 숫자는 기저조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5. 문제 풀이

해설 보기를 좋아하는 강사는 마음 같아서는 모든 문제의 해설을 넣고 싶었지만 체력의 한계로 2문제만 넣었다.

BOJ 2257 화학식량

2257번 화학식량

- 0. 문제 요약 : 분자식 (ex CH(CO2H)3)이 주어졌을 때 이 화학식의 화학식량을 구하라.
- 1. 처음 생각 : CH20 정도의 간단한 식이라면 for문을 돌면서 각 원자의 원자량을 최종 sum에 더해 나가면 된다.
- 2. 문제점 : CH(CO2H)3의 경우 괄호의 화학식량을 통째로 3배 해서 전체 화학식량에 더해야 한다. 단순히 for문으로는 지나쳐온 괄호의 화학식량을 따로 찿아내어 3배하기가 쉽지 않다.
- 3. 접근 : 이번주는 재귀함수를 배웠다. 함수를 만들어보자.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
- 4. 아이디어 : 괄호 단위로 화학식량을 계산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자!
- 5. 해결 : 재귀 함수 설계하기

2257번 화학식량

5. 해결 : 재귀 함수 설계하기 - 준비물

[전역변수]

입력 받는 화학식 -> 알파벳과 숫자가 섞여있으니 char배열로 선언! -> char chemi[105]; //모든 칸 \0로 초기화배열을 탐색할 인덱스 i -> int i; //0으로 자동 초기화

```
[함수]
int sol()
{
   int m = 0; // 괄호 단위의 화학식량을 저장. 리턴의 대상.
   // 구현 내용
   return m;
```

2257번 화학식량

```
#include <stdio.h>
char chemi[105]; //입력 받는 화학식 배열
            //배열을 순회할 인덱스
int i;
□int sol() { // 괄호 단위로 화학식량을 계산한다.
   int m = 0;
   while (1) //반복문으로 chemi[i]를 살펴본다. while문 밖에서 return m
      if (chemi[i] == 0) break; //문자열이 끝나면 더이상 m증가 ㄴㄴ
      if (chemi[i] == '(') { //여는 괄호를 만나면
                       //괄호 다음 인덱스로 이동.
         i++;
         m += sol();
                       //재귀 호출! 방금 만난 괄호의 화학식량을 구해와서 더한다.
      if (chemi[i] == ')') { //닫는 괄호를 만나면
                //괄호 다음 인덱스로 이동.
         i++;
         if ('0' < chemi[i] && chemi[i] <= '9') { //괄호 옆에 숫자가 있다면 ex (H)2
            m = m * (chemi[i] - '0'); // (괄호 안의 화학식량) * (옆 숫자)
                       //숫자 다음 인덱스로 이동
            i++;
         //괄호 옆에 숫자가 있든 없든 m은 괄호의 총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다.
         return m; //지금까지의 질량을 리턴한다.
```

여기까지가 함수가 시작하고 끝나는 조건들이다. 기저조건을 떠올려주면 된다.

재귀 함수를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밑으로는 화학식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구현한다.

인덱스 다루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 나도 이 코드 짜고나서 F11 계속 눌러봤다.

```
if (chemi[i] == 'C') { // C를 만났다!
           į++;
           if ('0' < chemi[i] && chemi[i] <= '9') { // C 옆에 숫자가 있다면
              m += 12 * (chemi[i] - '0'); // (C의 원자량 12) * (옆의 숫자)
                            // 숫자 다음 인덱스로 이동
              į++;
           // C 옆에 숫자가 없다면
           else m += 12; //그냥 12만 더해주기
        else if (chemi[i] == 'H') { // C랑 똑같다
           i++;
           if ('0' < chemi[i] && chemi[i] <= '9') {
              m += 1 * (chemi[i] - '0');
              i++;
           else m += 1;
        else if (chemi[i] == '0') { // C랑 똑같다
           i++;
           if ('0' < chemi[i] && chemi[i] <= '9') {</pre>
              m += 16 * (chemi[i] - '0');
              i++;
           else m += 16;
    // 널문자를 만나서 while문을 break 했다면
    return m; //지금까지 구한 화학식량을 리턴해서 프린트 하자.
int main(void) {
    scanf("%s", chemi);
    printf("%d", sol());
```

화학식량 계산하기.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재귀함수 상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이해해보자. 문제에 나와있는 (H)2(0)와 CH(CO2H)3으로 실 험해보면 충분하다.

3주차에서 배운 디버깅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BOJ 11729 하노이 탑의 이동순서

- 0. 문제 요약 : 1번 기둥에 있는 원판들을 3번 기둥으로 옮겨라. 단 원판은 항상 크기순으로 쌓여야 한다.
- 1. 처음 생각 : 아무 생각이 안 난다.
- 2. 그 다음 생각 : 예제처럼 원판 3개를 옮기는 그림을 그려본다. 3개 주제에 많이 복잡하다. 원판 20개면...어휴
- 3. 접근 : 역시나 함수를 만들자. 원판 개수를 입력하면 옮기는 횟수를 알아서 구해오는 똑똑한 함수가 있을 거라고 무작정 믿어보자.
- 4. 정보 : 사실 재귀함수의 근본적 파워는 일단 지금은 값을 모르겠지만 이 함수가 알아서 그 값을 구해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피보나치 함수를 떠올려보자. 나는 5번째 피보나치 수도 모르고 4번째도 모르고 3번째도 모른다. 하지만 fibo함수가 알아서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잘 구해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fibo(5)에서 fibo(4) + fibo(3)을 리턴한다. fibo함수는 기저조건이 있기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수를 리턴하고 값이 쌓여서 적절한 값을 찾아낸다.
- 5. 아이디어 : 일단 알아서 횟수를 구해오는 함수라고 이름 붙이고 '필요한 점화식'과 '적절한 기저조건'을 만들자.

if N이 1이라면? 즉 원판 1개짜리 탑을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으로 이동시키려면? 그냥 이동시키면 된다ㅇㅇ

if N이 2라면 ?

맨 위 원판을 2번 기둥으로 이동시키고 맨 아래 원판을 3번 기둥으로 이동시킨 뒤 2번 기둥에 있는 원판을 다시 3번 기둥으로 이동시킨다.

if N이 3이라면?

맨 아래 원판을 제외한 원판들을 2번 기둥으로 옮긴다. 방법은? N이 2일 때 원판 옮긴 방법을 쓰면 된다. 맨 아래 원판을 3번 기둥으로 옮긴다. 2번 기둥에 있는 원판들을 3번 기둥으로 옮긴다. 방법은? 아까와 같다.

if N이 N이라면?

맨 아래 원판을 제외한 N-1개 원판들을 2번 기둥으로 옮긴다. 방법은? N-1개 원판을 옮긴 방법을 쓰면 된다. 맨 아래 원판을 3번 기둥으로 옮긴다. 2번 기둥에 있는 N-1개 원판들을 3번 기둥으로 옮긴다. 방법은? 아까와 같다.

```
#include <stdio.h>
     int K; // 원판을 옮긴 횟수
     // 원판 n개를 옮길때 필요한 이동 횟수를 알아서 구해주는 함수
    □void hanoi(int n) {
        if (n == 1) // 원판 1개짜리 하노이 탑이라면
         //그냥 출발 기둥에서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면 끝
          K++; //옮긴 횟수 1 증가
11
12
          return;
14
15
        // 여러개짜리 하노이 탑이라면
        hanoi(n - 1); // 출발 기둥의 원판 n-1개를 경유 기둥으로 옮기고
17
        K++; // 마지막 원판을 목적지 기둥으로 옮긴뒤 (옮긴 횟수 1 증가)
        hanoi(n - 1); // 경유 기둥에 쌓여있는 원판 n-1개를 목적지 기둥으로 이동
```

원판 n개를 출발기둥(from)에서 목적지기둥(to)로 옮기기 위한 횟수를 구해주는 함수이다.

(Line 8~13)기저조건. 원판 0개짜리 탑까지 파고들 지 않게 원판 1개에서 컷트 해준다.

(Line 16) 출발 기둥의 원판 n-1개를 경유 기둥으로 옮겨 놓기 위한 이동 횟수는 hanoi(n-1) 함수가 알 아서 K에 체크해 놓을 거라고 믿는다.

(Line 18) 출발 기둥에 남아있는 제일 큰 원판 1개 를 목적지 기둥에 옮기면 횟수 K는 1 증가.

(Line 20) 경유 기둥에 뒀던 n-1개의 원판을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는 이동 횟수는 역시나 hanoi(n-1) 함 수가 알아서 K에 체크해 놓을 거라고 믿는다.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믿는다고만 하는 것 같지만 돌려보면 답이 잘 나온다. 이게 바로 재귀함수의 힘 이다. 잘 몰라도 대충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 저 절로 된다! 나도 이 함수는 그림 그려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다. 얘는 좀 너무 많다.

```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 지 출력해주는 함수
// 원판 개수, 출발 기둥, 목적지 기둥, 경유 기둥
⊡void hanoi2(int n, int from, int to, int by) {
    if (n == 1) // 원판 1개짜리 하노이 탑이라면
       //그냥 출발 기둥에서 목적지 기둥으로 옮기면 끝
       printf("%d %d\n", from, to);
       return;
    // 여러개짜리 하노이 탑이라면
    hanoi2(n - 1, from, by, to); // 출발 기둥의 원판 n-1개를 경유 기둥으로 옮기고
    printf("%d %d\n", from, to); // 마지막 원판을 목적지 기둥으로 옮긴뒤
    hanoi2(n - 1, by, to, from); // 경유 기둥에 쌓여있는 원판 n-1개를 목적지 기둥으로 이동
⊟int main() {
    int N;
    scanf("%d", &N);
    // 원판 옮긴 횟수 출력
    hanoi(N);
    printf("%d\n", K);
    //N개의 원반을 1번 기둥에서 3번 기둥으로 옮기고싶다. 옮기는 과정 출력
    hanoi2(N, 1, 3, 2);
```

원판 n개를 출발기둥(from)에서 목적지기둥(to)로 옮기는 과정을 출력 해주는 함수이다.

hanoi2함수의 구조는 hanoi랑 완전히 동일하다. K++부분을 print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왤까?

아까 n-1개 옮기는 횟수는 hanoi(n-1)이 알아서 구해주겠지 ~ 하고 넘었갔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n-1개를 한꺼번에 옮길 수는 없다.

결국 실제로 원판을 옮기는 행위는

- 1.맨 아래 원판을 옮길때
- 2.원판 1개짜리 탑을 옮길때

이 두가지 순간에만 일어난다. 우리는 그 두 순간에만 적절히 K++을 해줬기에 hanoi함수가 잘 작동해줬던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판 옮기는 과정을 출력하는 함수는 기존 함수의 K++자리에서 옮긴 경로를 print해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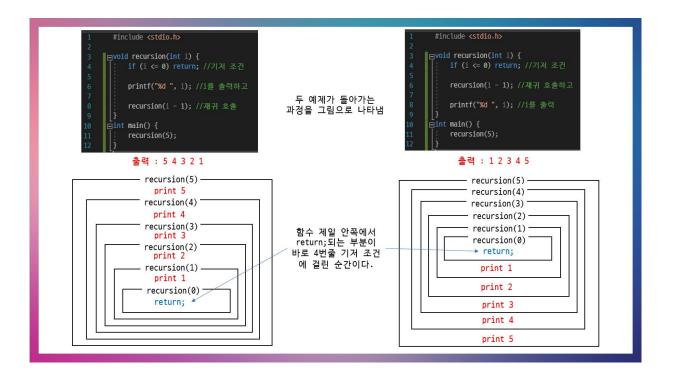
과제

과 - 반복문이 먼저 떠오르더라도 재귀 함수로 풀어보자

```
BOJ 10870번 피보나치 수 5
BOJ 9095번 1,2,3 더하기
BOJ 16076번 휴식이 필요해
BOJ 2609번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BOJ 2257번 화학식량
BOJ 11729번 하노이 탑 이동 순서
BOJ 1914번 하노이 탑
```

6. 부록

Stack-Overflow



앞 슬라이드의 함수 그림을 잘 보면 recursion(5)가 끝나기 전에 recursion(4)가 들어오고 recursion(3)이 들어오는 식으로 함수가 겹겹이 쌓여나가죠? 끝날 때는 제일 나중에 들어왔던 recursion(0)부터들어온 역순으로 함수가 끝나죠?

이런 걸 스택(stack)이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 제일 먼저 나가는 구조인데 자세하게는 나중에 배울거에요.

만약 기저조건을 없앴을 때처럼 함수를 끝내는 버튼이 없다면 끊임없이 함수가 쌓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터져버릴거에요.

이를 Stack-Overflow 라고 합니다! 보통은 run-time error로 만나게 될 거에요.

include <stdio.h>

우리가 흔히 쓰는 printf, scanf도 다 함수이다. 이 함수들의 정의와 선언은 어디에 되어있을까...? 바로 제목으로 커다랗게 쓰여있는 <stdio.h> 헤더파일이 관련이 있다! 자세한 구조는 창소프때 배우도록 하자.

stdio.h는 standard input output의 약자로 입출력에 관한 함수 printf, scanf등을 담고있다.

이외에도 <algorithm>, <string>, <string.h> 등 다양한 헤더파일이 존재한다. 일부러 .h가 있는 헤더와 없는 헤더를 섞어서 나열해봤다. 이들의 차이점은 .h가 있는 헤더는 C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이고 .h가 없는 헤더는 C++ 함수가 들어있는 헤더이다. 고로 string과 string.h는 아예 다른 헤더이다.

요즘(?)에는 헤더파일에 .h를 안 쓰도록 하는 추세라고 한다.
.h 대신 <cstdio>, <cstring> 등 앞에 c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
어디서 이런 헤더를 마주쳐도 당황하지 말자!

define sum(x, y) x + y

함수의 종류가 사실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저 제목과 같은 매크로 함수이다.

출력 결과 : 3

하지만 잘 안 쓰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
#include <stdio.h>
#define mul(x, y) x * y

#define mul(x, y) x * y

#define mul(x, y) x * y

#include <stdio.h>
#define mul(x, y) x * y

#include <stdio.h>
#include <stdio.h
#include <std
```

출력 결과 : 10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출력 결과 : 8

??

x * y 에 2+3 * 2 이렇게 들어간 것이다.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 2 + 3*2 = 8로 계산됨..

#define mul(x, y)(x)*(y) 로 선언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define MAX 100'000

입력

n과 x_i가 주어짇나. n은 10만 이하ㅇ고, x_i는 젗ㄹ댓값이 100이하인 정수디이다.

지난주 과제였던 귀찮아 문제의 일부이다. 입력이 최대 10만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10만칸짜리 배열을 만들 것이다.

입력

첫째 줄에 n이 주어진다. n은 9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이다.

그 다음 문제이다. 입력이 최대 90개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90칸짜리 배열을 만들 것이다.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배열을 거의 매번 만들게 된다.이때 배열을 조금 덜 번거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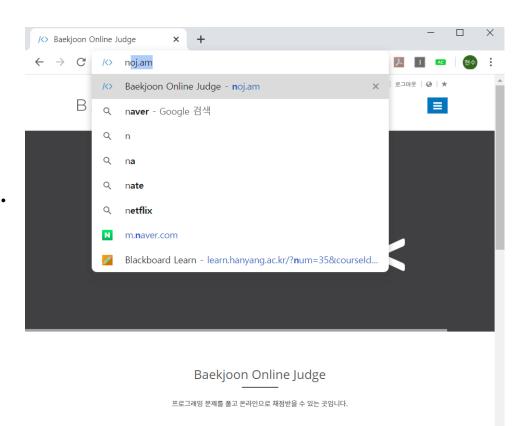
define MAX 100'000
int arr[MAX];
int sum[MAX];

이렇게 선언해주면 된다! 여러 개의 배열을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고 다른 문제를 풀 때는 MAX 숫자만 바꿔주면 된다.

내가 0을 몇 개나 붙였는지 헷갈린다면? 100'000처럼 중간에 작은 따옴표를 붙여줘도 된다!

noj.am/

주소창에 noj.am 을 입력하면 백준 사이트로 이동한다.
noj.am/16076 등 문제 번호도 입력하면 해당 문제로 이동한다.





높임말과 반말을 넘나드는 정신없는 피피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